

한국사

해설위원 : 한경준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01. 원간섭기 고려의 국가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고려 전체가 몽골의 직할지로 편입되었다.
- ② 정동행성의 승상은 몽골의 다루가치가 전담하였다.
- ③ 관제격하의 일환으로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은 첨의부로 통합되었다.
- ④ 대마리지가 집정대신으로서 국정을 총괄하였다.

[문제 해설]

정답 : ③ 고려시대 중 원간섭기의 체제 변화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원간섭기에는 고려가 원의 부마국으로 전락하면서 호칭뿐만 아니라 관제도 격하되었다. ③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의 2성이 첨의부로, 6부가 4사로, 중추원이 밀직사로 격하되어 자주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오답]

- ① 원간섭기에 상실한 영토는 쌍성총관부가 관할하는 철령 이북, 동녕부가 관할하는 자비령 이북, 탐라총관부가 관할하는 제주도 등이다. 동녕부와 탐라총관부 관할 지역은 충렬왕 때 반환되었고, 쌍성총관부는 공민왕 때 무력으로 수복하였다.
- ② 정동행성은 일본 2차 원정 때, 일본 정벌을 위해 설치한 기구로서 원정 실패 후에도 그대로 남아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였다. 정동행성의 장관은 고려왕이 겸직하였다.
- ④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면서 대마리지의 칭호를 부여받았다.

02. <보기>는 대한제국 시기의 국권 피탈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를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 하였다.
- ㄴ. 일본은 대한제국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어 내정을 간섭하였다.
- ㄷ. 대한제국은 재정과 외교 부문에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두게 되었다.
- ㄹ. 고종은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였다.

- ① ㄱ→ㄷ→ㄴ→ㄹ
- ② ㄴ→ㄷ→ㄱ→ㄹ
- ③ ㄷ→ㄱ→ㄹ→ㄴ
- ④ ㄹ→ㄷ→ㄱ→ㄴ

[문제 해설]

정답 : ③ 대한제국의 국권 피탈 과정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③ ㄷ→ㄱ→ㄹ→ㄴ

ㄷ 제 1차 한일협약(1904.8) : 고문을 통한 내정간섭(외교고문-스티븐스, 재정고문-메가타) → ㄱ 을사늑약(제 2차 한일협약, 1905.11) : 외교권 박탈(외교 담당 기구로 통감부 설치(1906)-점차 내정간섭 기구화) → ㄹ 만국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 파견(1907.6) : 이상설, 이준, 이위중 특사로 파견하여 을사늑약의 불법성 폭로와 무력적 침략 행위 규탄 → ㄴ (고종 강제 퇴위 후 순종 즉위)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 1907.7) :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일본인 관리 다수가 차관으로 임명되어 행정권 장악)

03. <보기>의 밑줄 친 '왕' 대에 이루어진 내용을 옳게 고른 것은?

<보기>

재위 19년에는 금관국주인 김구해가 비와 세 아들을 데리고 와 항복하자 왕은 예로써 대접하고 상등(上等)의 벼슬을 주었으며, 23년에는 처음으로 연호를 칭하여 건원(建元) 원년이라 하였다.

- ㄱ. 국호를 사로국에서 '신라'로,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 ㄴ. 왕은 연호를 고쳐 '개국(開國)'이라 하였으며 국사를 편찬토록 하였다.
- ㄷ. 왕호를 '성법흥대왕'이라 쓰기도 하였다.
- ㄹ. '신라국부'가 새겨진 울진봉평신라비가 세워졌다.
- ㅁ. 연호를 '인평(仁平)'으로 고쳤으며 분황사와 영묘사를 창건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ㄹ, ㅁ

[문제 해설]

정답 : ③ 금관국주의 항복,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의 사용 등을 통해 6세기 신라 법흥왕에 대해 묻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 왕호를 '성법흥대왕'이라는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울진 봉평 신라비는 법흥왕 때, 울령 반포에 대한 사실과 함께 동해안 북부 지방까지 알려주는 척경비이다. 이 비석에는 왕이 6부의 소속부도 밝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답]

㉢ 6세기 지증왕, ㉣ 6세기 진흥왕, ㉤ 7세기 선덕여왕

04. 고구려의 대중국투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고구려는 요서지역을 선제공격함으로써 수나라를 견제하였다.
- ② 수 양제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 ③ 을지문덕은 당 태종의 2차 침입을 살수대첩으로 막아냈다.
- ④ 양만춘은 수나라의 별동대를 안시성에서 격퇴하였다.

[문제 해설]

정답 : ①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의 고구려와 중국(수·당)과의 항쟁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① 고구려는 중국의 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에 위기 의식을 느끼고, 598년 영양왕 때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하였다.

[오답]

- ② 당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7세기 초 영류왕 때 연개소문이 주도하여 요동의 부여성-비사성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 ③ 을지문덕은 수양제의 30만 별동대를 살수(청천강 유역)에서 격퇴하였다.(612)
- ④ 안시성 성주였던 양만춘은 645년 당태종의 군대를 안시성에서 격퇴하였다.

05.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조선시대 법령의 기본이 된 법전이다.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육전의 원전과 속전,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 법전이다. (……) 편제와 내용은 경제육전과 같이 6분 방식에 따랐고,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균정하였다.

- ① 성종 때 완성되었다.
- ② 조준이 편찬을 주도하였다.
- ③ 아·호·예·병·형·공전으로 나뉘어 정리되었다.
- ④ 세조 때 만세불변의 법전을 만들기 위해 편찬을 시작하였다.

[문제 해설]

정답 : ② 제시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법전은 <경국대전>이다.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에 착수하여 성종 때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6전이 완성되었다.(이전과 호전은 세조 때 완성) <경국대전>의 완성은 조선의 유교적 통치 질서와 문물제도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 ② 조준은 태조 때, 기존의 여러 법전과 조례를 모아 <경제육전>을 편찬하였다.

06.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에 들어있지 않은 조항은?

- ①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동등권을 갖는다.
- ② 인천과 부산에 일본공관을 둔다.
- ③ 일본인 거주지역 내에서의 치외법권을 인정한다.
- ④ 일본선박의 조선연해 측량을 인정한다.

[문제 해설]

정답 : ② 1876년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① 1관에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는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조항을 통해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③ 10관에는 개항지 내 일본인 거주지에서의 치외법권(영사재판권)을 인정하였다.
 ④ 7관에는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1876년 부산을 개항하였으며, 이후 2곳을 20개월 내에 개항하기로 명시하였고, 원산은 1880년에, 인천은 1883년에 개항하였다. 공사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 의거하여 일본은 부산에 관리관을 파견하였고, 1879년에 일본 영사관을 건립하고 1880년에 영사관을 파견하였다.

07. 영조의 정책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고르면?

<보기>

- ㄱ. 형벌 제도를 개선해 가혹한 악형을 없앴다.
- ㄴ. 서얼 출신의 학자를 검서관에 기용하고 공노비의 해방을 추진하는 등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개선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ㄷ. 균역법을 시행하여 양반과 상민이 똑같이 군포를 부담하게 하였다.
- ㄹ. 청계천 준설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홍수에 대비하게 하였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문제 해설]

정답 : ① 영조의 업적을 묻는 문제이다.
 ㉠ 영조는 형벌 제도를 개선하여 압송형, 낙형 등의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연좌제를 완화시키는 한편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도 실시하였다.
 ㉡ 청계천의 범람을 막고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준천사를 신설하여 청계천 준설 사업을 실시하였다.

[오답]

㉢ 서얼 출신의 규장각 검서관 등용은 정조 때 시행하였고, 공노비 해방은 1801년 순조 때 시행되었다.
 ㉣ 균역법은 양반과 상민이 똑같이 군포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민의 군포 부담을 완화주기 위해서 군포 2필을 1필로 줄여주는 정책이다. 양반과 상민이 똑같이 군포를 부담한 정책은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호포제이다.

08. 고려시대 불교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태조는 혼요십조에서 전국에 비보사찰을 제한없이 늘려 불국토를 이루도록 당부하였다.
- ② 현종 때에는 거란의 대장경을 수입하여 고려의 독자적인 초조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고, 완료한 후 홍왕사에 보관하였다.
- ③ 광종 대 균여는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천태종을 창시하고,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④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던 향도를 계승하여 신앙의 결속을 다졌으며, 매항 행위를 함으로써 내세의 복을 빌기도 했다.

[문제 해설]

정답 : ④ 고려시대 전체적인 불교 문화에 대해 묻고 있는 문제이다.
 ④ 향도는 삼국시대 신라 화랑도에서 김유신이 조직하였다는 용화향도에서 그 유래가 시작되었으며, 매항 활동 등 불사 활동(불탑, 불상 건립 등)을 주도하던 종교적인 성격의 조직이다.

[오답]

① 태조 왕건의 혼요 10조에서 '사원의 건립은 지덕이 손상하지 않도록 도선의 말에 따라 지은 사찰(비보사찰) 이외에는 함부로 짓지 마라'라고 하였으므로 풍수지리설에 입각하여 사찰을 지을 것을 언급하였다.
 ② 초조대장경은 거란 2차 침입 이후에 조판하기 시작하였으며,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였다.
 ③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천태종을 창시한 승려는 고려 중기 때, 대각국사 의천이다.

09. 조선시대 중앙통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문관-궁중 도서를 관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학문기관
- ② 사간원- 국왕에 대한 간쟁과 논박을 담당한 언론기관
- ③ 승정원-국왕의 명령을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비서기관
- ④ 의금부-국왕의 명령을 받아 중대한 죄인을 다스리는 사법기관

[문제 해설]

정답 : ① 조선시대 중앙 통치 기구의 역할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② 사간원 : 왕에 대한 간쟁 및 봉박이 주요 기능이었으며, 고려의 낭사와 유사한 기능 담당
 ③ 승정원 :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왕의 비서기관으로 고려 중추원의 승선과 유사한 기능 담당
 ④ 의금부 : 국왕의 직속 사법 기구로서 반역죄, 강상죄 등 중대 범죄를 담당하였다.
 → ① 궁중 서적을 관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학문기관은 홍문관이다. 예문관은 왕의 교서를 작성하고, 사관으로 어전회의 등에 참석하여 사초(회의록) 등을 작성하였다.

10. 1960년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귀속재산처리법을 공포하였다.
- ② 한미경제조정협정을 체결하였다.
- ③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④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실시되었다.

[문제 해설]

정답 : ④ 1960년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④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시행되었다.

[오답]

① 귀속 재산 처리법 제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49년
 ② 한미 경제 조정 협정 체결은 1952년
 ③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은 1996년

11.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화이관(華夷觀)이라는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사대교린(事大交隣)을 기본 정책으로 삼았다.
- ② 복진정책 하에 고구려 고토의 회복을 도모하였다.
- ③ 일본과 여진에 대해서는 무력진압을 위주로 하였다.
- ④ 동남아시아국가와는 교류가 없었다.

[문제 해설]

정답 : ① 조선 초기의 대외 관계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① 조선 초기에는 중국(명)에 대해서는 조공과 책봉으로 표현되는 사대(事大) 정책을 기본 정책으로 삼았다. 비록 명에 대해 사대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정 간섭은 없었으며, 선진 문화를 흡수하기 위한 실리적인 측면도 있었다. 또한, 일본(왜)과 여진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 아래 교린(交隣)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왜)과 여진에 대해서는 강경책과 온건책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견제하였다.

[오답]

② 고려 초기(태조의 복진 정책)
 ③ 일본과 여진에 대해서는 강경책과 온건책을 적절하게 구사하였다.
 ④ 류큐(오키나와), 자바(인도네시아), 시암(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조공의 형태로 교역

12. <보기>의 밑줄 친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신라에서는 사람을 등용하는 데에 ㉠ 을(를) 따진다. [때문에] 진실로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남을 수가 없다. 나는 원컨대, 서쪽 중국으로 가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지략을 펼쳐서 특별한 공을 세워 스스로 영광스러운 관직에 올라 고관대작의 옷을 갖추어 입고 칼을 차고서 천자의 곁에 출입하면 만족하겠다.

- ① 통일신라기에 성립하였다.
- ② 국학이 설립되면서 폐지되었다.
- ③ 진골은 대야찬 이상의 고위 관등만 받을 수 있었다.
- ④ 혈통에 따른 신분제로서 승진의 상한선을 결정했다.

[문제 해설]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신라의 골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골품제는 신라의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지방 족장을 중앙 귀족으로 편입시켜 서열을 나누었으며,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 상한이 결정되었으며, 개인의 사회·경제와 관련된 일상 생활에도 영향을 주었다.

[오답]

- ① 6세기 법흥왕 때 골품제를 정비하여 제도화시켰다.
- ② 신라말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다.
- ③ 진골은 17관등에서 1관등까지 승진에 제한이 없을 뿐, 5관등인 대야찬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대야찬 이상은 진골만 차지하였다.

13. <보기>에 해당하는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은정월(殷正月)에 제천행사를 행하면서 국중대회를 열었다.
-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쳤다.
- 형이 죽으면 형수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 지방 행정구획으로 사출도가 있었다.

- ① 소와 말을 순장하였고 큰 새의 깃털을 장례에 사용 하였다.
- ② 제천행사는 '동맹'이었으며 국중대회에서의 제사가 있었다.
- ③ 천군이 신성지역인 소도에서 농경의례 등을 올렸다.
- ④ 재해가 발생하면 왕은 교제 혹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다.

[문제 해설]

정답 : ④ 초기국가인 부여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④ 부여는 왕이 존재하였으나 왕권이 미약하여 수해나 한해를 입었을 때는 왕에게 책임을 물어 교제하거나 죽이기도 하였다.

[오답]

- ① 소나 말의 순장 풍습(마한), 큰 새의 깃털을 장례에서 사용(진한, 변한)
- ② 고구려, ③ 삼한

14. 고려시대 무신정권기 정치와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신집권기 초반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상장군·대장군의 회의기관이었던 기존의 회의체 중방을 권력기구로 삼았다.
- ② 최충현은 군국의 정사를 관장하는 교정도감을 설치했고, 최우는 정방과 서방을 사저에 설치했다.
- ③ 김보당과 조위충은 최충현의 집권에 항거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 ④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지어 고려가 천손의 후예인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표현했다.

[문제 해설]

정답 : ③ 고려의 무신집권기의 정치 및 문화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① 무신집권기 초기의 권력 기구는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상장군과 대장군 16인의 합작 회의체인 중방을 최고 권력기구화하였다.

② 최충현은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교정도감을 권력기구화하여 스스로 교정별감이라는 최고 책임자를 맡으면서 1인 집정 체제를 세습하였다.

④ 최충현과 최우 집권기 때, 관직 생활을 하면서 최우 때는 재상의 지위까지 올라간 인물이다. 그는 그 당시 <동명왕편>을 저술하여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여주었다.

→ ③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의 난과 서경 유수 조위충의 난은 무신 집권 초기인 정중부 집권기 때 발생한 문신들의 반란인 반(反)무신란이다.

15. <보기>의 사실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했을 때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 ㄱ. 제2차 마 소 공동위원회 결렬
- ㄴ. 좌우 합작 위원회, '좌우 합작 7원칙'에 합의
- ㄷ. 이승만, 정읍 발언에서 남한만의 정부 수립 주장
- ㄹ. 유엔 소총회,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 실시 결의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문제 해설]

정답 : 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있었던 사건들의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 이승만의 정읍 발언(1946.6) → ㉡ 좌우 합작 위원회 조직(1946.7) 및 좌우 합작 7원칙 발표(1946.10) → ㉢ 제 2차 마소 공동 위원회 결렬(1947.5) → ㉣ UN 소총회를 통해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 단독 선거 결의(1948.2)

16. <보기> 자료의 민족 운동가들이 추진한 독립 운동에 대한 서술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8월 초에 여러 형제분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비밀리에 땅과 집을 파는데, 여러 집을 한꺼번에 처분하니 얼마나 어려우리오, 그때만 해도 여러 형제분 집은 예전 대갓집이 그럴듯이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고 (……)우리 집 어른(이회영)은 옛날 범절을 따지지 않고 위아래 구분 없이 뜻만 같으면 악수하여 동지로 대접하였다. (……) 1만여 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경술년(1910) 12월 30일에 큰 집, 작은집이 함께 압록강을 건너 떠났다.

-이은숙, 민족 운동가 아내의 수기, 서간도 시종가-

- ① 신흥강습소를 만들어 민족 교육과 독립군 양성을 추진하였다.
- ②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등의 독립운동 기지를 설립하였다.
- ③ 간민회를 기반으로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등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 ④ 나라를 되찾은 후 고종을 복위시키려는 목표를 세우고 전국적인 의병 봉기를 준비하였다.

[문제 해설]

정답 : ① 우단 이회영을 통해 서간도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던 신흥회를 묻고 있다.

① 서간도 삼원보 지역에 독립운동기지를 조성하고 무관학교인 신흥무관학교를 건립한 것은 이회영 형제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다.

[오답]

② 연해주 지역의 독립 활동(대한광복군정부(1914, 경동령 이상설, 부동령 이동휘), 대한국민의회(3·1 운동 이후, 연해주 지역에서 대동령을 손병희를 추대하여 만든 정부))

③ 북간도 지역의 독립 활동

④ 1912년에 임병찬이 주도하여 조직한 독립의군부

17. 대한제국의 근대화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② 서북철도국을 설치해 경의철도 부설사업을 추진했다.
- ③ 우편학당, 전무학당, 상공업학교, 의학교, 광산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 ④ 고종 대에 비변사를 설치하여 근대화사업 전반을 관장하였다.

[문제 해설]

정답 : ④ 대한제국 시기의 모습을 묻는 문제이다.

① 토지조사사업(양전지계 사업)을 실시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권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② 대한제국의 식산흥업 정책으로 실업학교가 건립되었고, 이후 서북철도국, 대한철도회사, 종로직조사 등 근대적 회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적 방해와 외국 상인들의 삼권 침탈로 경영이 부진하여 오래 존속하지 못하였다.

③ 식산흥업 정책으로 상공학교, 의학교, 우편학당 등 실업학교와 기술 교육 기관들을 설립하여 기술교육을 강조하였다.

→ ④ 비변사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혁파되었다.

18. <보기>에 나열된 고려시대의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거란의 소손녕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입 하여, 서희가 외교담판으로 거란군의 철수를 이끌어 냈다.
- ㄴ. 노비의 신분을 조사해 본래 양인인 사람들을 환속 시켰다.
- ㄷ. 송나라 사신 서공이 고려를 방문하고 「고려도경」을 지었다.
- ㄹ.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실직(實職)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에게 처음 지급하였다.

- ① ㄱ→ㄴ→ㄷ→ㄹ
- ② ㄱ→ㄷ→ㄴ→ㄹ
- ③ ㄴ→ㄱ→ㄷ→ㄹ
- ④ ㄴ→ㄹ→ㄱ→ㄷ

[문제 해설]

정답 : ④ 고려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나열하는 문제이다.

④ ㄴ → ㉠ → ㉡ → ㉢

ㄴ 노비안검법(956, 광종) → ㉠ 시정전시과(976, 경종) → ㉡ 서희의 외교담판(993, 성종) → ㉢ 송 사신 서공의 <고려도경> 저술(1123, 인종)

19. <보기>는 1927년에 창립한 어느 단체의 강령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 우리는 정치·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1.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 ①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하였다.
- ② 일제에 의해 조작된 소위 105인 사건으로 탄압을 받았다.
- ③ 전국에 140여 개소의 지회와 약 4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 ④ 1929년에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민중대회의 개최를 계획했다.

[문제 해설]

정답 : ② 1927년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로서 조직된 신간회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자료에서 신간회의 3대 강령을 통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① 1927년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통합으로 조직되었다.

③ 전국에 141개소의 지회를 두고 만주와 일본까지 그 조직이 확산되었으며, 4만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④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이 발생하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고, 이를 계기로 민중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사전 발간되어 성과가 없었다.

→ ② 신민회(1907~1911) : 105인 사건으로 해체(1911)

20. 조선 초기의 과전(科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과전은 성종 대까지 경기도에 한정되었다.
- ② 현직 관리에게 소유권과 수조권(收租權)을 부여하였다.
- ③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에게 모두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④ 과전에 대해서 상속권을 인정해 주었다.

[문제 해설]

정답 : ③ 조선 초기의 과전법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① 과전은 태종 때, 하삼도령으로 경기 이외 토지에서 수조권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세조 때 직전법 실시 후 경기 이외의 토지에서도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② 전직 관리(산관)와 현직 관리(직관)에게 수조권을 분급하는 제도였다. 소유권은 부여하지 않았다.

④ 원칙적으로 세습되지 않았다.

→ ③ 전직 관리(산관)와 현직 관리(직관)에게 수조권을 분급하는 제도였다.